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양희*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마닐라
파견대학	라살아라네타대학	기간	2016. 12. 24(토) ~ 2017. 1. 21(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습니다. 학교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규모가 큰 편이며 기독교 학교답게 학생들이 모두 정갈한 유니폼을 입고 등교합니다. 그에 따라 저희도 복장규제가 엄격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놀러간 것이 아니기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시설은 생각했던 것보다 좋았습니다. 책상과 의자가 일체형이어서 그것이 조금 불편하기는 했으나 에어컨도 잘 가동되고 공부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화장실 수압이..조금..약하기는 하나 조금 익숙해지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가드나 선생님들 현지 학생들 모두 따스히 대해주며 생활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수업	수업내용을 설명해드리기 전에 소그룹과 대그룹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공부하러 온 모든학교 사람들을 섞어서 소그룹(6명), 대그룹(12명)을 정해 줍니다. 하루 8시간 수업 중 2시간(소그룹), 3시간(대그룹), 3시간(1:1코치)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소그룹 시간에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말하기를 집중적으로 배우며 영어로 PPT를 제작하여 발표하는 수업 등을 합니다. 대그룹 시간에는 토익 듣기, 토익 스피킹, 영어로 광고 만들기 수업을 합니다. 1:1시간에는 말하기, ESSAY쓰기 등을 합니다. 각기 교재가 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분반은 입학식 전에 레벨테스트를 통해 나뉘게 됩니다. 레벨별로 교재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강사도 개인별로 다릅니다. 선생님을 잘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잘 맞지 않는 경우 헤드티처를 찾아가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주십니다. 과제는 적절한 편이며 마지막 주에는 필리핀을 즐기라며 과제를 스킵해주십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수업준비는 따로 할 것이 없지만 전날 내주신 과제를 해가고 시험보기 전 날 한 번씩 훑어보면 통과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수업은 대부분 재미있고 이른 아침 수업의 경우 선생님들이 눈치껏 장난도 더치시면서 잠도 깨워주십니다. 재미있습니다.
Activity	액티비티의 종류는 4가지가 있었습니다. 1. 민도르 섬 2. 마닐라 투어 3. 따가이따이 4. 팍상한 폭포

	<p>저는 4가지의 액티비티 중 민도르 섬과 마닐라 투어를 했습니다.</p> <p>민도르 섬 투어와 마닐라 투어는 학교에서 지원해주셔서 공짜로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학교의 경우 자비로 부담했어야 했습니다. 이 점 정말 좋았습니다. 액티비티의 경우 필리핀에 오게되면 단톡방에 필리핀에서 일하시는 라살 한국인 분들이 초대되는데 단톡을 통해 액티비티 비용, 일시, 설명 등 자세하게 설명해줍니다. 자기가 가고싶은 액티비티를 선택해서 H하버드 오피스에 가서 신청하고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준비물도 알려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열정! 하나만 있다면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는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더운 날씨를 정말 싫어합니다. 현지의 날씨가 나름 필리핀의 겨울이라고 하는데 한국에 비해 그 정도로 추운 것은 아니지만 사람 살기 좋은 딱 그러한 날씨입니다. 가끔씩 비가 올 땐 역시나 습하고 끈적하고 정말 짜증이 날 정도의 날씨도 있기도 합니다. 허나 귀국일이 다가올수록 우리나라의 초가을 같은 선선함이 저녁에만 찾아옵니다. 낮에는 물론 여름이지요. 더울 땐 진짜 덥습니다. 허나 이곳은 동남아니까 이러한 날씨도 즐겨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친구들이 추워서 벌벌거릴 때 반팔입고 셀카 한 장 보내면. 그것만큼 뿌듯함이 없습니다. 꼭 한번 느껴보세요.</p>
안전	<p>학교가 시내와 떨어져있어 그만큼 학교 주변이 그렇게 시가지가 아닙니다. 필리핀이 부부금술이 좋은지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바공바리오라는 근처 야시장까지 걸어가는데 정말 많은 아이들을 봅니다. 돈을 달라는 아이들도 있고 안녕! 니하오! 가시냐! 사랑해요! 사랑해! 예쁘다! 다양한 한국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와 신기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계속 듣다보면 가끔은 기분이 나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주변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야시장이나 주변을 물색할 때는 혼자보다는 여러명이 뭉쳐서 다니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input checked="" type="checkbox"/>) 홈스테이 (<input type="checkbox"/>) 외부 숙소(<input type="checkbox"/>) 기타(<input type="checkbox"/>)</p> <p>운이 좋게도 신 기숙사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에어컨도 빵빵하도 와이파어도 터집니다. 물론 번기의 수압도 좋습니다, 분위기는 한 층을 아예 한국 학생들만 사용하기 때문에 향설생활관 또는 학성사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층마다 2개의 다목적실이 있어서 정수기와 소파, TV, 냉장고 싱크대가 구비되어 있어 야식 먹기도 좋습니다. 통금시간이 10시라는 점이 매우 아쉽기는 하지만 안전 때문에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침대 매트리스가 스펀지 같은 느낌이어서 내 몸에 달라붙는 느낌 잊을 수 없습니다.</p>
식사	<p>학교식당(<input type="checkbox"/>) 홈스테이 (<input type="checkbox"/>) 외부식당 (<input type="checkbox"/>) 기타(<input type="checkbox"/>)</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학교식당은 기숙사 내에 있는 식당을 얘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말씀드립니다</p>

	니다. 밥이 진짜 맛있습니다. 가끔씩은 와 엄마가 해주시는 것보다 맛있는데...엄지척을 얼마나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다른 학교 사람들은 맛 없다고 하는데 마음을 비우고 이곳이 한국이다 생각하면 감사히 먹게됩니다.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 외부식당은 블로그나 선생님들께 추천받으면 다양한 식당등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필리핀 음식이 대부분 짜거나 강렬한데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익숙해지면 그러려니! 잘 먹게됩니다. 그렇게 돼지가 됩니다.
교통	통학 방법은 기숙사와 학교와 2분 거리에 있어 걸어다녔습니다. 외부로 놀러 나갈 때에는 트라이시클을 타거나 지프니를 타거나 먼 곳을 갈 때는 우버와 그랩이라는 어플을 통해 택시를 불러서 사용했습니다. 우버와 그랩은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면 좋을 것처럼 좋습니다. 교통체증이 심할 경우에는 정말 심합니다. 유의하세요!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기숙사보증금	699,000	출국 전 사전 납부
달러를 페소로 환전	300달러	360.000원
2차 환전	6000페소	150.000원
합계		총 1,209,000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p>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p> <p>출국 전 네이버 블로그를 찾아보면 라살대학으로 어학연수를 온 학생들의 후기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환전하는 것을 한국에서 달러로 환전하고 필리핀에서는 달러를 페소로만 환전하기!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필리핀에서 한국 돈을 페소로 환전할 경우 환율에 따른 손실을 크게 보게 됩니다. 비상약이 구비되어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개인 상비약을 챙겨가는 것이 좋을 듯하며 미리 한국에서 마닐라 관광지나 맛집 등을 리스트로 작성하여 가면 더욱 좋을 듯 싶습니다. 이것저것 즐기다보면 자금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출국 전에 국제 현금카드를 만들어 가시면 필리핀 ATM에서 돈을 페소로 뽑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수수료가 5000원정도 발생하는데 돈이 부족한 친구들과 합쳐서 수수료를 나누게 되면 더욱 효율적일 것입니다.</p> <p>한국으로 귀국하기 전에 선생님들께 편지랑 선물을 드리곤 하는데 필리핀의 필기도구와 노트등을 한국에 비해 많이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한국에서 미리 구입해가서 선물해드리</p>

는 것을 추천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저는 외국에서 공부해보는 것이 처음이어서 정말 큰 꿈을 갖고 출국하게 되었는데요! 더운 날씨를 워낙 싫어해서 걱정도 많았습니다. 정말 습하고 더운 날에는 한국가고 싶다~하루 종일 외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1달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다고 느낄 만큼 필리핀에 폭~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영어로만 수업을 하는 것도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지만 하다 보니 영어가 능숙하지 않아도 영어로 말하는 저 자신을 보며 오..양희정..생각하게도 되고 초반 너무도 짠 필리핀 음식 때문에 고생했었는데 살다보니 어느새 잘 먹는 제 모습을 보며 허허..돼지가 되어가는 저를 하루하루 느끼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과 수업이 끝나고 밥을 먹으러 시내에 나가기도 하고 사소한 추억들에 감사하게 되는 마음 가짐이 생기기도 합니다. 마닐라 주변의 관광지에는 안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주말에 항상 돌아다녔는데 그에 따라 환전도 더 해야했고 바쁜 생활을 보냈습니다. 후회가 없을 정도로 만족스러웠고 누구에게는 그냥 흘러보내야할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낸 것 같아 너무도 만족스럽습니다. 단어시험이나 듣기시험이 있는 날에는 다른 학교 학생분들과 한마음이 되어 함께 정답을 공유하는 등 유쾌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기숙사 식당에서 밥을 2번 리필해서 먹은 적도 있고 여자의 신분을 내려놓고 먹은 적도 많습니다. 한국이 그리워지는 날이 있기도 했고 한국음식에 미쳐 날뛰었을 때도 있습니다. 필리핀에 함께 있는 순천향대학교 학우분들과 그럴때마다 한 마음이 되어 이겨낼 수 있었으며 관광지에서 한국 브랜드들을 보게 되면 왠지모를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저의 느낀 점으로는 1달이라는 시간에 영어실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듣거나 대화하는 것에는 조금더 나아진 듯한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는 있었지만 작문이나 어휘는 본인의 기초 실력도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다른 학교의 경우 8주 프로그램으로도 운영하는 것을 우리학교도 8주를 도입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기도했습니다. 많은 학우분들이 기간이 너무 짧다고 많이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처음 본 학우들과 친해져서 친형제, 친자매가 된 것만 같아 너무도 뿌듯하고 큰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남은 방학기간에 어휘능력을 키울까합니다. 대화는 하고 싶은데 어휘가 떠오르지 않아서 멘탈붕괴에 빠졌을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국 영화와 드라마를 자막없이 볼 것입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추천해주신 방법이기도 합니다. 학년이 3학년이 된 만큼 졸업요건도 맞춰야하고 영어능력에 있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토익학원을 다니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집에서 독학으로 영어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단기어학연수는 너무도 큰 경험이었고 앞으로도 국제교류처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민도르 섬에서 물놀이!



필리핀 빵집의 엄청난 유혹



마닐라 동물원에서 인생샷 건지기



뱀 2마리와 사진 찍기 30초 전



한인타운에서 삼겹살과 코다리 냉면



학교 앞 갤럭시 피자 사장님과 함께